



## 여성의 취업여부와 사회적 역할 만족도에 따른 건강상태\*

안 속 희<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고, 특히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 증가와 결혼 후에도 여성이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통계청(2002) 보고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85년 41%에서 2001년 49%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의 취업에 따른 건강상태 연구에는 취업 여성의 다중역할 수행이 이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과, 해롭지 않거나 유익한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역할긴장 가설을 통해 여성취업의 부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부모기를 경험하는 취업여성들은 남편들보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Biernat & Wortman, 1991), 역할갈등을 경험하고(Reifman, Biernat & Lang, 1991), 이는 높은 우울수준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indle & Dumenci, 1997). 이와 반대로 Waldron, Weiss와 Hughes(1998)는 역할상충 가설을 통해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은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없고, 부모기와 직장인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여성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Ahn(2002)의 연구에서 산욕초기 취업 여성과 비취업여성 간 신체증상, 피로도,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상충가설을 지지하였다.

최근 연구보고에서는 가족구성원 또는 직장인으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의 질이 양호한 건강상태(Hibbard & Pope, 1987; Wickrama, Lorenz, Conger, Matthews & Elder, 1997), 삶에 대한 만족 및 정신적 안녕 (Vandewater, Ostrove & Stewart, 1997)에 중요한 설명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서는 직장인 역할의 질보다 배우자 역할의 질이 여성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주는데(Park, 2001; Szaflarski, 2001)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이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향상되었다(Koh, 1998; Miller, Wilbur, Montgomery & Chandler, 1998; Park, 2001; Waldron et al., 1998; Wickrama et al., 1997). 그러나 취업여부를 역할의 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의미로서 양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개개인이 해당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가 고려된 채 여성건강을 이해하는 제한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수와 더불어 역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여성건강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방향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양적개념으로 접근한 역할의 수와 질적 개념인 역할만족도가 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젊은 연령, 고학력, 높은 가족 수입 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은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Choi, 1993; Park, 2002). 또한 가사일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와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Kim & Kim, 1996; Moon, Huh & Hong, 1997; Park, 2002) 우울의 주요 설명요소

주요어 : 취업, 여성, 역할, 신체건강, 우울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신진교수 연구정착금에 의해 수행됨

1)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지자 E-mail: sukhceahn@pusan.ac.kr)

투고일: 2004년 1월 20일 심사외퇴일: 2004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04년 2월 25일

였다(Bird, 1999; Glass & Fujimoto, 1994). 따라서 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역할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이 맡은 사회적 역할의 수와 개별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비록 부모기를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와 역할의 질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취업여성에게만 국한된 접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업주부로서 가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취업여성이 아직 과반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업주부를 포함한 전체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역할의 수와 역할만족도가 신체건강상태와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직업이나 결혼과 같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삶의 질이나 건강수준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여성건강을 증진시킬 전략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유무와 역할 만족도에 따른 신체건강과 우울수준을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두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역할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유무와 역할 만족도에 따른 신체건강과 우울수준의 차이를 조사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유무와 역할 만족도가 신체건강과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한다.

## 용어정의

역할 만족도: 역할이란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사회적 지위와 부합되도록 기대되는 행동, 감정, 태도로서(이경혜 외, 2004, pp 56), 역할 만족도는 역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서 얻게 되는 주관적 느낌을 말하며, 본 연구에는 여성이 담당하는 3가지 사회적 역할, 즉 배우자, 어머니, 주부로서의 역할, 그리고 취업여성은 직장인 역할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점수이다.

건강상태: 건강은 단순한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WHO,

1947), 본 연구에서는 신체건강과 우울로 나누어 측정된 점수이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횡단적 상관성 조사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P시에 거주하며 학령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 181명으로, 취업여성 72명(40%)과 비취업여성 109명(60%)이었다. 연구대상 표출은 P시 6개 교육청에 등록된 초등학교 중 각 교육청 단위로 1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6개 학교에서 무작위로 1개 학년 1개 학급을 선정하여 해당학급에 출석하는 학생의 어머니를 모집하였다. 회수율은 총 210부를 배포하여 189부가 회수되어 90%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고, 자료입력 과정 중 발견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대리응답자로 추정되는 질문지 8부를 제외하였기에 최종 분석대상 자료는 181부였다.

### 연구도구

- 역할만족도 : 여성의 사회적 역할로 주어진 배우자, 부모, 아내, 직장인 역할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100mm 길이의 시각상사척도(VAS)로 각각 측정하였다. 점수범위는 0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에서부터 100점 '매우 만족한다'이며 대상자는 해당역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척도 위에 사선을 그어 표시하였다. 채점방식은 0을 기준으로 사선이 표시된 곳까지 길이를 mm 단위까지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신체건강 : 이숙자(2000)가 개발한 자가 건강상태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도구는 4점 등간척도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신체관련 문제에 대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1 '그렇지 않다'에서 4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고, 역코딩이 요구되는 문항을 재코딩 한 후 총 25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25-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89$ 였고, 본 연구에서는  $\alpha = .88$  이었다.
- 우울 : Zung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을 양재곤(1982)이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고 4점 등간척도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1 '거의 드물게'에서 4 '거의 대부분'으로 평가하였고, 역코딩이 요구되는 문항을 재코딩한 후 총 20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2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전 연구

에서 보고된 도구의 신뢰계수는 .81였고, 본 연구에서는  $\alpha = .83$ 이었다.

- 역할관련 특성 : 대상자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남편 및 타인의 지지도를 평가하기 위한 5가지 역할관련 특성을 질문지를 통해 추가로 조사하였다. 가사일 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식정도는 1문항, 1-4점 척도로 1 '아주 불공평하다'에서 4 '아주 공평하다'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일 분담에 대해 공평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1문항, 1-5점 척도로 1 '매우 반대한다'에서 5 '매우 찬성한다'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남편의 가사일 보조정도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및 실제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정도는 0-100점의 점수범위를 갖는 100mm의 시각상사척도 (VAS)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일 보조가 적극적이고, 도움이 필요도가 높고,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자가 대상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의 담임선생님에게 연구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이 후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녀는 이를 어머니에게 전달한 뒤 어머니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주말동안 집에서 질문지를 작성하여 월요일 아침에 자녀를 통해 질문지를

학교로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질문지를 자녀를 통해 돌려준 어머니에 대해서는 연구진행을 허락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1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질문지 작성에 대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다. 자료 분석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빈도, 서술통계,  $\chi^2$  검정, t-검정, 이원 공변량 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서술통계와 차이 검정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38세(범위 30-49세)이고 반수 이상(56%)이 고졸 학력을 소지하였다. 이들은 평균 2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큰 자녀의 평균 연령은 12세(범위 7-25세), 막내자녀의 평균 연령은 8.8세(범위 1-14세)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평균 11-15년이 가장 많았고(44%), 가족 월수입은 3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40%).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특성 비교시, 큰 자녀 연령, 막내자녀 연령, 가족 월수입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학력, 자녀수, 결혼기간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큰 자녀 연령은 취업여성에서 평균 13세, 비취업여성에서 평균 11세로 나타났고( $t=2.06, p<.05$ ), 막내 자녀 연령 역시

<Table 1> Women's General Characteristics

(N=181)

		Employed Women	Non-employed Women	$\chi^2$ or t-value
		(n=72)	(n=109)	
		M (SD)	M (SD)	
Age+ (years)	range: 30-49	38.88 (4.25)	37.63 (4.35)	1.90
Age of oldest child+ (years)	range: 7-25	12.69 (4.21)	11.46 (3.76)	2.06*
Age of youngest child+ (years)	range: 1-14	9.22 (2.96)	8.34 (2.89)	1.99*
		N (%)	N (%)	
Education	≤ High school	35 (48.6)	67 (62.0)	3.65
	Junior Colleges	10 (13.9)	14 (13.0)	
	≥ College	27 (37.5)	27 (25.0)	
Number of Children	1	12 (16.7)	16 (14.7)	1.49
	2	52 (72.2)	74 (67.9)	
	3 or more	8 (11.1)	19 (17.4)	
Length of marriage (years)	6-10 years	20 (27.8)	44 (40.5)	3.58
	11-15 years	37 (51.4)	42 (38.5)	
	≥ 16 years	15 (20.8)	24 (22.0)	
Family income (1,000 won/Month)	<1,000K	8 (11.4)	5 (4.8)	12.32**
	<2,000K	15 (21.4)	32 (30.8)	
	<3,000K	21 (30.0)	48 (46.2)	
	≥3,000K	26 (37.1)	19 (18.3)	

\* p<.05, \*\*p<.01

취업여성에서 평균 9세, 비취업여성에서 평균 8세로 나타나 ( $t=1.99, p<.05$ ) 취업여성의 자녀들이 비취업여성의 자녀들보다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월수입을 살펴보면, 취업여성에서 가족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7.1%, 비취업여성에서 18.3%로 나타나 취업여성에서 맞벌이 수입을 통한 고액의 가족 월수입자가 많았다( $X^2=12.32, p<.01$ ).

한편 취업여성들은 대체로 전문행정직(30%), 판매서비스직(25%), 생산노무직(13.2%)에서 일하고, 대부분이 정규직 종사자(77%), 전일제 근무자(75%)로 나타나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근무경력으로는 5년 이하 경력이 44%로 가장 많았고, 16년 이상 경력이 26%, 6-10년 경력이 18%, 11-15년이 11.5%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34%, 101-200만원 사이가 31%, 그리고 201만원 이상이 34%로 보고되었다.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역할관련 특성과 사회적 역할 만족도 및 건강상태**

대상자의 취업유무에 따른 역할관련 특성, 역할 만족도, 건강상태에 대한 서술통계와 차이 검정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가사일 분담의 공평성 인지도는 취업여성에서 2.44, 비취업여성에서 2.47로 유사하였고, 인식정도는 3점 '그런대로 공평하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취업여성에서 3.53으로 남편들이 아내의 취업을 '찬성'하는 쪽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비취업여성에서는 3.00('그저 그렇다')으로 나타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87, p<.001$ ). 즉 취업여성들은 자신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비취업여성의 남편이 보이는 태도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남편의 가사일 보조정도는 100점 기준 시 취업여성에서 44.4로 비취업여성의 점수 37.6보다 높게 나타나 취업여성의 남편이 가사일 참여정도가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취업여성에서 47.2로 비취업여성의 점수 39.4보다 높게 나타나 취업여성에서 타인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 도움을 받은 정도는 취업여성에서 31.3, 비취업여성에서 29.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두 군 모두 필요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배우자, 어머니, 주부, 직장인으로서 역할 만족도는 100점 기준에 61-71점의 범위를 보여 자신의 역할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에서 배우자 역할만족도는 62.6점으로 비취업여성의 69.1점보다 낮게 나타나,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배우자역할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t=2.08, p<.05$ ). 신체건강은 취업여성에서 76.7점, 비취업여성에서 79.3점으로 두 군 모두 양호한 신체건강 상태를 보였고, 우울수준은 취업여성에서 41.5, 비취업여성에서 42.7점으로 두 군 모두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두 군간 신체건강 상태와 우울에 대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여성의 취업상태와 역할 만족도에 따른 건강상태 차이**

대상자의 취업상태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군으로 나누었고, 역할만족도는 평균을 중심으로 만족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여 건강상태를 평가하였다. 또한 문헌고찰에서 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대상자의 연령, 학력, 가족 월수입과 역할관련 특성

<Table 2> Comparisons of Study Variables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Women (N=181)

	Range	Employed Women (n=72)	Non-employed Women (n=109)	t-value
<b>Role-related Variables</b>				
Equality of household work	1-4	2.44(.75)	2.47(.72)	.31
Husband's attitude toward wife's work	1-5	3.53(.92)	3.00(.87)	3.87***
Household assistance from husband	0-100	44.43(31.11)	37.63(29.01)	1.48
Amount of extra help needed	0-100	47.24(33.73)	39.38(31.29)	1.58
Amount of extra help received	0-100	31.26(32.25)	29.89(30.82)	.28
<b>Role Satisfaction</b>				
as a Spouse	0-100	62.64(22.03)	69.11(19.45)	2.08*
as a Parent	0-100	69.08(20.10)	71.48(17.43)	.84
as a Housewife	0-100	62.76(21.23)	66.54(16.94)	1.32
as a Paid Worker‡	0-100	69.02(22.82)	-	-
<b>Health Status</b>				
Physical Health	44-98	76.72(10.49)	79.33(10.29)	1.66
Depression	20-70	41.46 (8.33)	42.71(8.82)	.95

\* p<.05, \*\*\* p<.001; ‡ Employed women only

<Table 3> Differences in Physical Health and Depression by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Role Satisfaction (N=181)

	Employed Women		Non-Employed Women		Main Effect		Interact Effect
	High Sat.	Low Sat.	High Sat.	Low Sat.	Work Status	Role Sat.	Work* Role Sat
	M(SD)	M(SD)	M(SD)	M(SD)	F <sup>+</sup>	F	F
<b>Physical Health</b>							
as a parent	80.0(10.03)	73.9(10.38)	80.8 (9.19)	78.1(11.49)	4.96*	7.06**	.58
as a wife	79.5(9.82)	74.6(10.84)	80.0(10.44)	78.8(10.39)	4.55*	2.73	1.09
as a housewife	80.1(9.57)	73.5(10.71)	79.3(10.27)	79.8(10.61)	5.07*	1.59	3.39
<b>Depression</b>							
as a parent	38.9(8.05)	43.6(8.25)	41.7 (7.68)	44.0(9.65)	.10	6.56**	.36
as a wife	39.6(7.43)	42.9(9.05)	41.6 (7.95)	44.4(9.43)	.16	3.32	.02
as a housewife	39.3(7.47)	43.4(8.98)	41.3 (8.61)	44.5(8.58)	1.08	3.62	.02

\* 2-way ANCOVAs were done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age, income, equality of housework, father's attitude toward women's work.

\* p<.05, \*\*p<.01

- Sat: Satisfaction

변수인 가사일 분담의 공평성 인지도와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공변수로 처리하였다. 이원 공변량 분석을 통해 건강상태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신체건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과 역할 만족도간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취업의 주 효과와 역할 만족도의 주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취업의 주 효과에서는 취업 여성의 신체건강 수준은 개별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없이 비취업여성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4.96, p=.03; F=4.55, p=.03; F=5.07, p=.03). 역할만족도의 주 효과에서는 어머니 역할만족도가 높은 군이 역할만족도가 낮은 군에 비해 신체건강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F=7.06, p=.01). 특이사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으나 부모역할, 배우자 역할, 주부역할에 만족이 낮은 취업여성은 다른 세 군들에 비해 신체건강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에 대한 차이검정에서는 취업과 역할만족도간 상호작용 효과와 취업의 주 효과는 없었으나 어머니 역할만족도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 만족이 높은 군이 역할만족이 낮은 군보다 우울수준이 낮았다(F=6.56, p=.01). 특이사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역할, 배우자 역할, 주부역할에 만족이 낮은 비취업여성은 다른 세 군들에 비해 심한 우울수준을 경험하고 있었다.

### 여성의 신체건강과 우울에 대한 설명요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건강과 우울을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대상자 특성(연령, 학력, 가족수입, 가사일 분담 공평인지도,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을 입력하여 역할만족도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는 역할의 수와 3가

지 역할 만족도를 각각 입력하여 추가설명력과 이들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인역할 만족도가 신체건강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여 결과는 신체건강은 <Table 4>에, 우울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신체건강의 설명요인을 1단계에서 살펴보면, 나이가 젊을 때, 가족 월수입이 높을 때, 신체건강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6%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 추가된 역할의 개수, 즉 취업유무는 신체건강에 2%의 유의한 추가 설명력을 보이며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보다 양호한 신체건강상태를 보고하였다( $\beta = -.18, p < .05$ ). 역할만족도에 대해서는 부모역할 만족도가 신체건강에 2%의 유의한 추가 설명력과 함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신체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7, p < .05$ ). 그러나 아내역할 만족도와 가정주부역할 만족도는 신체건강에 대해 유의한 추가 설명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직장인 역할만족도가 취업여성(N=75)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단계에 입력된 통제변수가 13%의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고, 젊은 취업여성들이 양호한 신체건강상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추가된 직장인역할 만족도는 12%의 유의한 추가 설명력을 보였고, 직업인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여성의 신체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0, p < .001$ ).

다음으로 우울에 대한 설명요인을 1단계에서 살펴보면, 대상자의 학력이 높을 때, 가족수입이 높을 때, 가사일 분담 공평성 인식이 높을 때,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긍정적인 때 낮은 수준의 우울을 설명하였고, 이때 유의한 설명변량은 15%이었다. 2단계에 추가된 취업유무는 우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역할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 가정주부역할 만족도는 모두 2-3%의 추가 설명력을 보이며 우울에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역할 만족도( $\beta$

<Table 4> Predictors of Physical Health

(N=181)

	All Women				Employed Women Only		
	First Stage		Second Stage		First Stage	Second Stage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Age	-.18*	-.15*	-.18*	-.16*	-.17*	-.29*	-.26*
Education	-.01	.01	.01	-.01	-.01	.01	.01
Family Income	.16*	.17*	.13	.12	.14	.20	.07
Equality of housework	.08	.07	.05	.08	.07	.07	.08
Husband's attitude toward women's work	.15	.20*	.15*	.16*	-.15*	.17	.05
Women's employment†	-	-.18*	-	-	-	-	-
Role satisfaction as a wife	-	-	.14	-	-	-	-
Role satisfaction as a parent	-	-	-	.17*	-	-	-
Role satisfaction as a housewife	-	-	-	-	.07	-	-
Role satisfaction as a paid worker‡	-	-	-	-	-	-	.40***
F value	3.09**	3.45**	3.11**	3.51**	2.69*	3.03*	4.82***
Adjusted R <sup>2</sup>	.06	.08	.07	.08	.06	.13	.25
Additional R <sup>2</sup>	-	.02	.01	.02	.00	-	.12

\* p<.05, \*\* p<.01, \*\*\* p<.001 † 1=employed, 0=not employed

<Table 5> Predictors of Depression

(N=181)

	All Women				Employed Women Only		
	First Stage		Second Stage		First Stage	Second Stage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Age	.07	.08	.07	.05	.06	.08	.06
Education	-.16*	-.16*	-.18*	-.18*	-.16*	-.29*	-.29*
Family Income	-.17**	-.17*	-.14	-.13	-.14	-.14	-.07
Equality of housework	-.19*	-.19**	-.15*	-.19**	-.17*	-.24*	-.24*
Husband's attitude toward women's work	-.20**	-.19**	-.20**	-.21**	-.21**	-.12	-.05
Women's employment†	-	-.01	-	-	-	-	-
Role satisfaction as a wife	-	-	-.16*	-	-	-	-
Role satisfaction as a parent	-	-	-	-.18*	-	-	-
Role satisfaction as a housewife	-	-	-	-	-.16*	-	-
Role satisfaction as a paid worker	-	-	-	-	-	-	-.22
F value	7.02***	5.82***	6.78***	7.02***	6.84***	4.38**	4.30***
R <sup>2</sup>	.15	.15	.17	.18	.17	.20	.23
Additional R <sup>2</sup>	-	.00	.02	.03	.02	-	.03

\* p<.05, \*\* p<.01, \*\*\* p<.001 † 1=employed, 0=not employed

= -.16, p<.05), 부모역할 만족도( $\beta$ = -.18, p<.05), 가정주부역할 만족도( $\beta$ = -.16, p<.05)가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을 나타냈다. 한편 직장인역할 만족도가 취업여성(N=75)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입력된 통제변수는 20%의

설명력과 함께 대상자의 학력과 가사일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때 취업여성의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단계에 추가된 직장인역할 만족도는 3%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으나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 논 의

연구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0%에 달해 전국기준 통계치 49%(통계청, 2002)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능력에 제약을 줄 수 있겠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취업률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어머니, 아내, 주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Baruch & Barnett(1986)에 따르면 사회적 역할들은 부담감과 보상 두 측면을 모두 보유하는 데, 보상이 부담을 상회할 때 역할의 질은 높게 평가된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정도가 다른 역할들의 점수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여성들이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자녀양육 역할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학령기 자녀들이 지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및 발달하는 모습을 통해 획득되는 즐겁고 기쁜 경험들이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배우자역할 만족도만이 비취업여성에서 취업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결혼생활이 비취업여성에게 유익한 효과를 준다는 Waldron 등(1998)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취업여성과는 달리 비취업 여성은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은 아내로서, 가사일과 자녀양육 등의 남편 내조하는 것에 자기만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역할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나쁜 신체건강 수준을 보여 역할과다가 여성의 신체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는 역할긴장 가설을 일부 지지하였다. 한편 취업여성의 직업의 종류, 업무특성 및 업무시간 등에 따라, 또한 가사일 일을 맡아주는 가족구성원이 있거나 정기적인 파출부 활용을 통한 가사일 부담이 적은 경우 이들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수를 확대하여 이들의 직업특성 및 가정 특성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역할의 수보다 역할의 질이 건강수준의 중요요소로 보인다고 지지된 연구(Baruch & Barnett, 1986; Buller, 1994)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관련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역할의 수와 역할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해 보았다. 취업유무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취업여성의 신체건강이 비취업여성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장인역할 만족도를 고려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취업여성에서 양호한 신체건강상태를 볼 수 있었다. 만일 본 연구가 역할의 수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취업이 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보인다는 역할긴장이론을 지지한 것으로 결론이 유도될 수 있으나, 역할의 질을 고려한 결과 대상자가 직장인역할을 어떻게 평가하

느냐에 따라 그들의 신체건강이 달리 보고됨을 발견하였기에 역할의 수와 질 양측을 고려한 여성건강 사정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역할 만족도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를 증진시키는 설명요인으로 확인되어 부모역할의 질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제시된 연구들(Baruch & Barnett, 1986; Windle & Dumenci, 1997)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는 어머니라는 역할자체가 여성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ahelma, Arber, Kivela & Roos, 2002)와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부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 연구(Musil, Youngblut, Ahn & Curry, 2002)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특성상 가족과 모성의 가치를 자녀양육의 성공에 맞추어 평가하는 가정지향성이 사회의 규범으로 강조되기 때문에(Chin, 1993) 자녀양육의 결과물을 통해 여성은 자신을 더욱 가치 있고 유능하며 성공적인 사람으로 간주하여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한 여성의 부모역할만족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추가로 배우자 역할과 가정주부 역할 만족도가 높은 여성들에서도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의 질이 여성의 정신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와(Vandewater et al., 1997; Wickrama et al., 1997) 일치하며, 여성들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개개인이 인식하는 역할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 때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입증한다 하겠다.

그러나 취업상태와 직장인 역할 만족도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장생활과 결혼생활 그리고 부모기를 동반하는 것이 여성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Waldron 등(1998)의 주장과, 여성에서는 직장인 역할만족보다 가정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Szafarski(200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외로 유의한 설명요인은 직장인 역할만족도 대신 취업여성이 고학력을 소지하며 가사일 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할 때 취업여성의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고학력을 소지한 취업여성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여성이 남편과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대상자들이 시각상사적도에 응답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 서술통계에서 큰 표준편차를 보였다. 일직선상에 0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100 '매우 만족한다'의 점수범위에 대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만족정도를 일직선 위에 사선을 그어 표시해 달라는 응답요령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0 아니면 100을 선택하여 극단의 값을 보고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따라서 시 각상사척도를 자가 보고용 질문지에 사용하기에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추후에는 다른 측정도구를 추가로 사용하여 개념측정의 정확성 및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할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첫째, 남편과 자녀들은 아내 또는 어머니가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가족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어머니, 아내, 가정주부)을 담당하는 가족구성원임을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 여성의 자존감과 역할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또한 가사일에 남편의 참여를 증가시켜 가사일이 분담되어질 때 여성이 인식하는 배우자 역할의 질이 향상되고, 이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직장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는 직장사회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사회적 역할만족도에 따른 건강상태를 비교하고,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설명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학령기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181명에게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이용한  $\chi^2$ -test, t-test, 이원 공변량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신체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여성이 직장인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이들의 신체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여부와 직장인 역할 만족도는 정신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여성의 신체건강에는 역할의 수와 역할의 질 양 측면이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정신건강에는 배우자, 부모, 가정주부와 같은 가족 역할의 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역할의 수와 역할의 질 양 측면을 고려하여 여성의 건강상태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무작위 표본추출과 더 큰 표본 크기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요구된다.
- 여성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hn, S. (2002).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and infants prematurity on postpartum health. *Korean J Womens Health Nurs*, 9(1), 55-68.
- Baruch, G. K., & Barnett, R.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 Pers Soc Psychol*, 51(3), 578-585.
- Biernat, M., & Wortman, C. B. (1991). Sharing of home responsibilities between professionally employed women and their husbands. *J Pers Soc Psychol*, 60(6), 844-860.
- Bird, C. E. (1999). Gender, household labor,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amount and division of housework. *J Health Soc Behav*, 40(1), 32-45.
- Buller, S. (1994). Women's roles and health: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Women Health*, 22(2), 11-30.
- Chin, M. J. (1993). *The mother-role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Choi, K. R. (1993).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dual-earner couples. *J Korean Home Econ Acad Society*, 31, 61-84
- Glass, J., & Fujimoto, T. (1994). Housework, paidwork, and depression among husbands and wives. *J Health Soc Behav*, 35, 179-191.
- Hibbard, J. H., & Pope, C. R. (1987).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us among men and women. *Women Health*, 12(2), 85-102.
- Kim, K. S., & Kim, O. N. (1996). Role expectation, role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dual-earner couples. *J Korean Home Manage Assoc*, 14, 1-18.
- Koh, J. J. (1998). The influences of job characteristic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dual earner couples. *J Korean Home Econ Acad Society*, 36(4), 163-178.
- Lahelma, E., Arber, S., Kivela, K., & Roos, E. (2002). Multiple roles and health among British and Finnish women: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oc Sci Med*, 54(5), 727-740.
- Lee, K. H., Lee, Y. S. et al. (2004). *Women's Health Nursing*. Seoul: Hyunmoonsa.
- Lee, S. J. (2000). An application effect of rhythmic movement program for the health promotion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30(3), 776-790.
- Miller, A. M., Wilbur, J., Montgomery, A. C., & Chandler, P. (1998). Social role qu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mployed black and white midlife women. *AAOHN J*, 46, 371-378.
- Moon, S. J., Huh, K. O., & Hong, Y. J. (1997). The influences of household labor division between couples and the perceived equality for labor division on marital satisfaction. *J Korean Home Econ Acad Society*, 35(2), 345-358.
- Musil, C., Youngblut, J., Ahn, S., & Curry, V. (2002).



- Parenting stress: A comparison of grandmothers and mothers. *J Ment Health Aging*, 8(3), 1-14.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1996-2002)*.
- Park, E. O. (2001).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quality of social roles and health for married working mothers, *J Korean Community Nurs*, 12, 450-458.
- Park, E. O. (2002).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marital role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Korean J Womens Health Nurs*, 7, 80-92.
- Reifman, A., Biernat, M., & Lang, E. L. (1991). Stres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married professional women with small children. *Psychol Women Q*, 15, 431-445.
- Szaflarski, M. (2001). Gender, self-reported health, and health-related lifestyles in Poland. *Health Care Women Int*, 22(3), 207-227.
- Vandewater, E. A., Ostrove, J. M., & Stewart, A. J. (1997). Predicting women's wellbeing in midlife: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ocial role involvement. *J Pers Soc Psychol*, 72, 1147-1160.
- Waldron, I., Weiss, C. C., & Hughes, M. E. (1998). Interacting effects of multiple roles on women's health. *J Health Soc Behav*, 39(3), 216-236.
- Wickrama, K. A., Lorenz, F. O., Conger, R. D., Matthews, L., & Elder, G. D. Jr. (1997). Linking occupational conditions to physical health through marital, social, and intrapersonal processes. *J Health Soc Behav*, 38(4), 363-375.
- Windle, M., & Dumenci, L. (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s: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 Marriage Fam*, 59, 625-634.
- Yang, J. K. (1982). A study of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in psychiatric patients. *J Korean Neuropsychiat Assoc*, 21(2), 217-227.

## Physical Health and Depression in Women by Employment Status and Role Satisfaction\*

Ahn, Suk-Hee<sup>1)</sup>

1)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physical health and depression by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role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significant predictors for women's health status. **Method:** With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tudy design, a sample of study was consisted of 181 women who were employed or not employed whose child was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chi^2$ -test, t-test, 2-way ANC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rogram. **Result:** Employed women had poorer physical health than that of nonemployed women and women who had greater satisfaction as a parent reported better physical health and lower level of depression than who had lower satisfaction with covariates. Predictor for better physical health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 was being not employed, greater satisfaction with worker's role if employed, and greater satisfaction with parent's role. Women who had lower level of depression reported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ir social roles, but occupancy of multiple roles and role satisfaction as worker were not related to depression. **Conclusion:** Role quantity and role quality seem to be very important factors to maintain better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women.

**Key words :** Women, Employment, Role, Health, Depress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or New Facultie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Ahn, Suk-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1-10 Ami-dong Seo-gu, Pusan 602-739, Korea

Tel: +82-51-240-7755 Fax: +82-51-248-2669 E-mail: sukheahn@pusan.ac.kr